



# 주관적 삶의 질(Subjective Wellbeing) 개념과 후생수준 추정에 관한 연구

최장훈 연구위원

전통적인 후생경제학에서 삶의 질(wellbeing)은 소득의 효용함수에 의해 산출되고 있으나 이러한 효용함수는 실제 삶의 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따라서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효용함수 대신 「주관적 삶의 질(Subjective wellbeing, 이하 SWB)」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새로운 측정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음. 한편 소득의 한계효용에 기초하여 복지정책을 결정할 경우 윤리적 측면에서 상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전통적인 경제이론에 의해서만 복지정책을 결정하기보다 SWB를 통한 측정 결과와 윤리적인 가치판단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전통적인 후생경제학에서 삶의 질(wellbeing)은 소득의 효용함수에 의해 산출되고 있으나 이러한 효용함수는 실제 삶의 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음
  - Layard (2011)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많은 소득을 원하지만 소득이 많아져도 더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힘
  - Frey & Stutzer(1999)는 5,500명의 스위스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소득 계층별 삶의 만족도의 차이는 매우 작고 재무 상태가 좋아진다고 더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함
    - 삶의 질은 소득 차이보다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사회적 참여 가능성이 높아질 때 향상되는 것을 보임
-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효용함수 대신 「주관적 삶의 질(Subjective wellbeing, 이하 SWB)」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새로운 측정방법이 전통적인 방법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이 제기됨
  - O'Donnell(2014)은 자기 평가(Self-reported)에 기반을 두는 측정방식으로 자신의 행복과 삶의 만족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 스스로 답을 하여 삶의 질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SWB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함

- Deaton(2018)은 삶의 질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소득 이외에 건강, 교육, 시민적 자유, 사회적 참여, 존경, 위엄, 자유 등과 같은 주관적 요소도 삶의 질을 측정하는 변수에 포함되어야 함을 제시함
  
- 다수의 사회복지정책 관련 연구들은 SWB 개념을 적용하여 삶의 질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함
  - Cummins et al.(2002)은 SWB 방법을 활용하여 호주의 삶의 질 지수를 개발하였고 이를 사회복지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함
  - Dolan & Metcalfe(2012)는 정부에서 SWB를 활용하기 위한 권고사항들을 제안함
  - Veenhoven(2002)은 정책입안자들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SWB 개념을 활용한 삶의 질 평가 지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소득과 같이 정량적 기준만으로는 전체적인 삶의 질을 평가하지 못하므로 여기에 정성적 기준(주관적 만족)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삶의 질이 올바르게 평가된 사회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음
    - 정책입안자들은 정량적 지표만으로는 대중의 선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한 정성적 지표까지 고려된 종합적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 SWB에 대한 문제점으로, SWB는 상황 의존적(context-dependent)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동 기법을 활용하여 나타난 결과를 해석하는데 주의가 요구된다는 연구도 있음
  - Schwarz & Strack(1999)는 SWB 결과가 경제상태 또는 개인의 일시적인 기분과 같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동 접근방법의 한계점을 지적함
  - 이와 더불어 측정결과가 질문의 상황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질문순서에 따라 SWB결과가 바뀔 수 있어 SWB를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함
  
- 전통적인 경제이론에 의하면 연령별 소득(소비)의 한계효용은 일반적으로 연령에 따라 U자 형태를 보이지만, 역U자형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한계효용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는 연구들은 상당함
  - 전통적 이론에 의하면 고(저)소득자의 한계효용이 낮(높)은데, 한계효용이 연령에 따라 U자 형태를 보이는 것은 일반적으로 저연령층과 고연령층의 소득이 중간연령층의 소득보다 낮기 때문임
  - 전통적인 이론에 기반한 연구로 Layard et al.(2008), Groom & Maddison(2018), Boyce & Wood (2011) 등이 있음

- Layard et al.(2008)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효용이 얼마나 빨리 감소하는지에 대해 연구함
- Groom & Maddison(2018)은 한계효용의 탄력성을 추정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회적 할인율 (Social Discount Rate)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새로운 증거를 발견함
- Boyce & Wood(2011)는 개인의 성향과 한계효용에 관한 연구에서 개인의 성향은 가계 수입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보임
- 하지만 Deaton(2018)은 미국인의 연령대별 한계효용은 남녀모두 역 U자 형태를 보이고 남자에 대한 한계효용이 여자에 대한 한계효용보다 더 크다는 것을 보임
  - 이러한 결과는 가구의 자녀 수, 인종, 거주형태, 혼인상태, 흡연유무 등과 같은 변수들을 모형에 반영하는 것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타남

■ 소득(소비)의 한계효용이 높은 사람에게 소득이 재분배 되도록 해야 경제이론에 맞지만 이 경우 윤리적 측면에서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 효용함수 방식보다 주관적 삶의 질(SWB 방식)이 유용할 것으로 보임<sup>1)</sup>

- 중간 연령층보다 소득이 낮은 젊은층과 노인층의 한계효용이 높고 남성보다 소득이 낮은 여성의 한계효용이 더 높다면 이들에게 소득이 재분배 되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바람직함
-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간연령층의 한계효용이 높다는 연구결과 (Deaton 2018)에 의하면, 이 계층에게 소득이 재분배 되도록 하는 결과가 되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

■ 윤리적 불합리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경제이론에 의해서만 복지정책을 결정하기보다 SWB를 통한 측정 결과와 윤리적인 가치판단을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1) Viner (1949), "Bentham and J. S. Mill: The Utilitarian Background"

## 참고문헌



- Boyce, C. J., and Wood A. M.(2011), "Personality and the marginal utility of income: Personality interacts with increases in household income to determine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Vol. 78, pp. 183~191
- Cummins, Robert, A., Eckersley R., Pallant J. Vugt Jackie V. and Misajon R.(2002), "Developing A National Index of Subjective Wellbeing: The Australian Unity Wellbeing Index",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64, pp. 159~190
- Deaton, Angus(2018), "What do Self-Reports of Wellbeing Say About Life-Cycle Theory and Policy?", NBER Working Paper
- Dolan P. and Metcalfe R.(2012),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Recommendations on Measures for use by National Governments", *Journal of Social Policy*, Vol. 41, No. 2, pp. 409~427
- Frey, Bruno S. and Stutzer Alois(1999), "Measuring Preferences by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Institutional and Theoretical Economics*, Vol. 155, No. 4, pp. 755~778
- Groom B. and Maddison D.(2018), "New Estimates of the Elasticity of Marginal Utility for the UK",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pp. 1~28
- Layard, R.(2011), "Happiness : Lessons from a New Science", Second Edition, Penguin, UK
- Layard, R., Nickell S., and Mayraz, G.(2008), "The marginal utility of incom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92, pp. 1846~1857
- O'Donnell, Gus, Angus Deaton, Martine Durand, David Halpern, and Richard Layard(2014), "Wellbeing and policy", London, Legatum Institute
- Schwarz, Norbert, and Strack, Fritz(1999), "Reports of subjective well-being: judgmental processes and their methodological implications",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Vol. 122, pp. 75~87
- Veenhoven, R.(2002), "Why Social Policy Needs Subjective Indicators",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58, pp. 33~46
- Viner J.(1949), "Bentham and J. S. Mill: The Utilitarian Background",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Vol. 39, No. 2, pp. 360~382